

44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Chapter

계 21:1~22:5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 48장 (오랫동안 기다려 온)

오늘 배울



말씀

1.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생각합니다.
2.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입니다.

마음 열기



To Heaven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모습 중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가장 기대되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나 마귀와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실재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일 뿐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 천국이기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낙원, 영원한 처소’ 등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보여 주셨는데 그 성의 크기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2,220km 정도가 됩니다. 이는 성의 높이가 남북한 길이의 두 배에 해당되고, 바닥 면적은 인도만 하며, 체적으로는 달만한 거대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 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과학자이시자 예술가이시기에 천국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완전한 몸을 입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형제자매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무한하고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안식의 세계이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3~4)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heaven saying,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shall be His people.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or sorrow, nor crying. There shall be no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Rev 21:3~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시 16:11)

(요 14:1~3)

(히 12:22~24)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5절을 잘 읽고 다음에 답해 보세요.

1.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던 가운데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20~21절을 읽고 답을 적어 보세요.
2. 본문에 따르면 당시 사도 바울은 두 욕망 사이에 끼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망과 갈등인지 23절과 24절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
“살아서 ()을 전하고도 싶고, 죽어서 ()와 함께 있고도 싶고.”
3. 두 욕망 중 사도 바울이 더욱 바랐던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도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욕망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4.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소망과는 달리 힘든 복음 전파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이는 그와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22절, 24~25절을 읽고 답해 보세요.
바울에게(22절) :

교회에게(25절) :
5. 사도 바울과 동일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분향인 천국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고난의 의미

강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없는 망치질과

그저 돌맹이였던 철광석을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담금질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나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
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7)

해 지는 저편 (Beyond the Sunset)

브룩 목사 부부가 위노나 호숫가에 있는 호머 씨 택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침 호숫가 너머로 해가 지는 장관에 모든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동석한 사람들 중 맹인이었던 호레이스가 “이처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세계 어디에도 이같이 아름다운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아해 한 브룩 목사가 “호레이스 씨, 당신은 마치 이 경치를 보고 있는 듯이 말하는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띠며,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본답니다. 비록 장님이지만 해 지는 저편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브룩 목사는 그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찬송 199장 ‘해 지는 저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1절) 해 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 (2절) 해 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 지는 저편 기쁨 넘쳐
- (3절) 해 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 (4절) 해 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니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